

“국악예배”로 드리는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2022년 8월 14일(주일) 오후 3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

- *NCCK 유튜브채널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 *향린교회 국악선교회와 함께합니다.
- *에큐메니칼 동역자들과 체류외국인들과 함께 드립니다.



NCCKTV 혹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연합예배

목적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1. 분단된 한반도의 화해와 치유를 위하여 세계교회와 함께 기도함
2.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실천을 통하여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함
3.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함
4. 한반도 평화통일 및 지구촌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세계교회들과 함께 협력하고 연대함

배경 광복절인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1.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는 전 세계교회가 매년 8.15 직전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세계교회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예배문을 사용해주기를 소망하며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을 위한 예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3.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에 제안한 초안입니다.
4. 2018년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발표하여 평화, 번영, 통일의 새 길을 제시하였으나 한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분단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NCCK는 이 두 선언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하여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선언하였고,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 (Korea Peace Appeal) 전 세계교회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웃, 친지, 주변의 공동체와 함께 이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공동번역)

2022년 8월 14일(주일) 오후 3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

2022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모임

[입례 연주] 향린교회 국악선교회 예향
(일어섭니다)

[입례송] 다같이 * 오소서 오소서

오 소 서 - 오 소 서 평 화 의 - 임 금
우 리 가 - 한 몸 이루게 하 - 소 서

1. 평화의 2. 정의의 3. 생명의

[예배 부름] 다같이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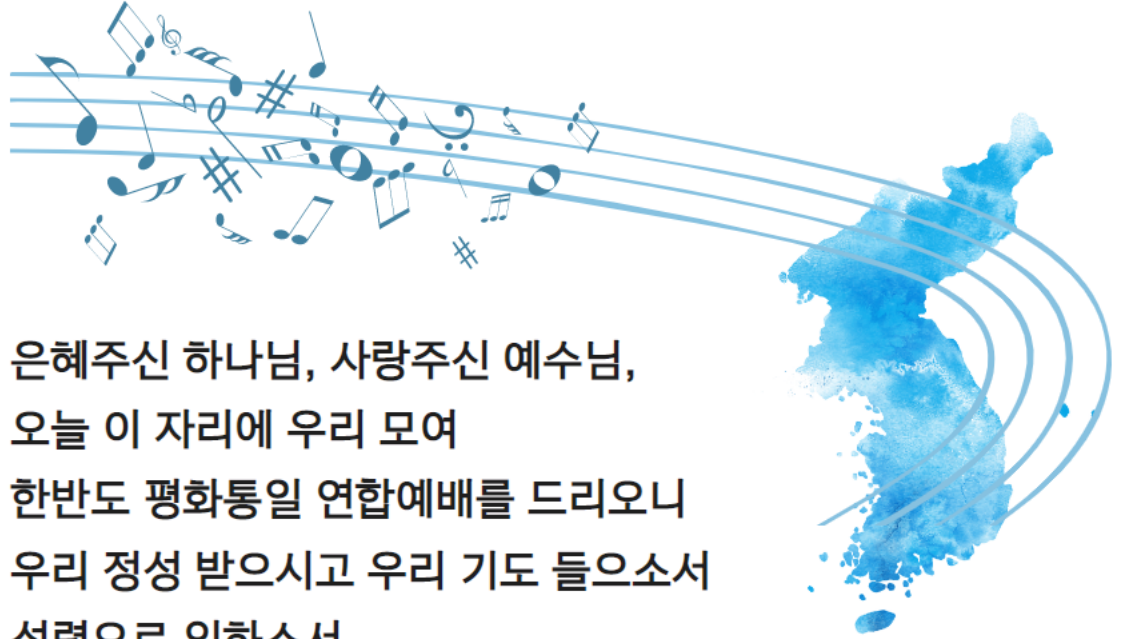
(앉습니다)

[입례 예식] 입례송에 맞추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상징물을 들고 입장합니다.

- 남측 성경 공동번역,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입니다.
- 북측 성경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번역하고, 북측교회가 실제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 한 몸 십자가 각기 다른 이름과 개성을 지닌 나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숲을 이룹니다. 한 몸 십자가는 서로 다른 이들이 십자가 구속의 은총 아래에서 조화와 평화, 일치를 이루는 교회공동체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 백두산 돌 분단의 아픔이 평화와 통일로 치유되기를 원하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정울림]

[비나리]

임재기원송

은혜주신 하나님, 사랑주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여
 한반도 평화통일 연합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정성 받으시고 우리 기도 들으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삼생송

- 1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할제
 우리안에 생기불어 은총과복 나리셨네
받는소리 : 아- 해- 해에에 -- 거룩하신 하나님
- 2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가운데 임하셨네
 그이름은 예수시라 구원의길 보이셨네
받는소리 : 아- 해- 해에에 -- 거룩하신 예수님
- 3 하나님의 뜻하심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안에 임하셨으니 성령님의 크신은혜라
받는소리 : 아- 해- 해에에 -- 거룩하신 성령님
- 4 주님의 은혜로 한가족이 된 우리
 하나님과 내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고
 힘써서로 섬기면서 하나님나라 이루리라
받는소리 : 아- 해- 해에에 -- 하나님나라 이루리라

신앙의 내력

아브라함 믿음이 파주주루루 훑어져 믿음의 자손 되었네
 출애굽의 역사가 파주주루루 훑어져 해방신앙 되었네
 예언자의 외침이 파주주루루 훑어져 한반도에 퍼지네
 구주예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라
 (이어서)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공동번역)

(이어서)

신앙의 내력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두손을 한데모아 마음과뜻과 정성다해

우리주께 비옵나니 우리기도 들으시고 주님나라 이루소서

오늘의 간구

자비하신 우리주님 평화의 주하나님
민족끼리 증오하는 불쌍한 한반도를
남과북이 번영향해 소통하게 하옵소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평화의빛 비추소서
남북정상 상봉했던 판문점 선언처럼
남과북이 마음모아 평화와번영 새역사로
정의평화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아래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하나님 비나이다

허리잘린 한반도를 굽어살펴 주옵소서
주변국의 간섭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분단의담 무너뜨려 화해와포용 이루소서
삼천리 방방곡곡 성령의은총 내리소서
전쟁분단 걸림돌을 거둬내게 하옵소서
세계평화 실현하는 디딤돌로 삼으소서
온세계인 기도의힘 지혜와용기 주옵소서
남북해외 우리모두 평화의물결 되게하소서

시편 찬송 34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그치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에서 건지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하나님을 경외하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경외 하는길은 할렐루야 아멘
악한말을 하지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악한일들은 피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평화를 찾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의로운사람 살피시며 할렐루야 아멘
야훼하나님 우리주님 할렐루야 아멘
의로운이 고난많은나 할렐루야 아멘
힘을내라 용기를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찬양하는 노랫소리 할렐루야 아멘
주찾을때 응답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수치당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부족함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니 와서들으라 할렐루야 아멘
거짓말을 하지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선한일들만 도모하라 할렐루야 아멘
있는 힘을 다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의로운이 건져주시는 할렐루야 아멘
낙심한자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의로운이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경배 찬송] 다같이 * 돌이 하나가 되리



자진 굿거리

Dm F Dm

f

1. 마른 뼈 들에게 생 기를 불어 넣어 - 주셨 네
2. 나무 막 대기를 불 여서 하나 되게 - 하셨 네

Dm F Dm

뼈 와 뼈 들모아 힘 줄을 끈게 이어 주셨 네
따로 들 이었던막 대기 끈게 이어 주셨 네

Gm

mf

살 불이 고 가 죽 씨 위
들 이 서로 하 나 되 게

살 불이 고 가 죽 씨 위
들 이 서로 하 나 되 게

Am

주 의 숨 결 힘 - 꺾 불 어 서
주 의 손 이 불 들 고 있 으 리

주 의 숨 결 힘 - 꺾 불 어 서
주 의 손 이 불 들 고 있 으 리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공동번역)

Dm B \flat maj⁷ Dm

f

마른 뼈 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 주셨네
둘이 하나 되게 하리라 둘이 하나 - 되리라

Gm G

mf

두 번 다시 두 번 다시
두 번 다시 두 번 다시

Dm Dm

mp

죽는 일 없으리 사망은 없으리
나뉘지 않으리 헤어짐 없으리

Dm

p

흠흠



말씀



[오늘의 기도] 김병호 목사 (재일대한기독교교회KCCJ 총간사)

[특송] 평화가 있기를 *예향

[말씀 맞이] 

[성서 읽기] 시편 37편 37절 * 이광원 목사 Kurt Esslinger (미장로교회PCUSA 소속, NCCK협력)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개역개정)

[말씀송] 다같이 *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F C7 F Gm B7m F/C C7
이 말씀 따 - 라 사는 동안 지 치 지 않 - 게 아 시고

F A7 Dm /C B7 F/C C7 F
이 말씀 따 - 라 사는 동안 주님 나 라 이 루 소 서 -

[말씀 나눔] 정병주 목사 (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안대미 찬양] 산 밑으로 내려가자 * 기독교예술단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공동번역)

보냄

[중보기도] 말은이 * 2022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남측초안)

+ 로만 카브착 Roman Kavchak 학생

주님, 언제여야 합니까?
언제여야 길 잃은 한반도의 방향이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여야 아픔의 땅, 한(조선)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언제여야 남과 북/북과 남이 서로를 향했던 총칼을 내려놓고,
서로를 얼싸안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호소에 절망이 깃든지 오래입니다.
기약 없는 평화를 목 놓아 기다리는 것도 지쳐만 갑니다.
기어이 백년을 넘기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입니다.
주님, 언제여야 짙게 드리운 분단의 그림자가 걷히는 것입니까?

+ 최소영 목사 (NCCK 여성위원회 위원장)

긴 세월, 남과 북/북과 남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수많은 민민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비난해왔던 수십 년간,
마음의 간극은 깊어졌고 한민족의 정체성은 희미해졌습니다.
분단을 먹이삼아 기생하는 이들은 이악스럽게 살아남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의 몸짓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긴장과 갈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민민의 삶에 무거운 멍에가 되고 있습니다.
깨어진 신뢰 속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한반도를 휘감고 있습니다.
이념이 그어놓은 철조망은 77년째 녹슬어가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우리들의 심정은 타들어갑니다.

+ **이한빛 청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청년위원회)

주님, 한(조선)반도의 민민은 꿈이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참혹한 역사에 굶이어 생긴
 깊은 상처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는 서로가 미워하며,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가 평화를 말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빚어낸 모든 간극이 해소되고,
 전쟁이 세워 낸 철조망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체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막아서는 모든 이들의 욕망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는 끔찍한 전쟁이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는 폭력의 광풍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북/북과 남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며,
 함께 자주적으로 복잡한 분단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한반도를 향한 민민의 이 꿈들이 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 **롤리 덴싱 카푸톨란** Lolie Densing Caputolan (서울 디아스포라교회)

이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추동할 역사의 발걸음을 상상하게 해주십시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성취해야할 소명임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을
 남과 북/북과 남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분단의 깊은 상처가 아물고,
 한민족이 손을 맞잡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평화롭고 자주적인 한반도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꺼져가는 남북/북남통일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공동번역)

+ **김성란 목사** (캐나다연합교회UCC 소속)

77년 분단의 세월,
가늠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축적된 인고의 시간.
주님, 더는 안 됩니다.
더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는 전쟁과 폭력의 사슬에 묶여 끌려 다닐 수 없습니다.
민민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남과 북/북과 남 그리스도인들의 절규에 응답해주십시오.
화해와 평화를 향한 버겁고 멀고 먼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정의의 왕, 평화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단 찬송] **다같이 * 비무장 지대**

문익환

류형선



비 무장 지 대 로 가 자 비 무장 지 대 로 가 자



얼 륙 진 군 복 은 벗 어 라 여 기 는 비 무 장 지 - 대 라



비 무 장 지 대 로 오 라 비 무 장 지 대 로 오 라
너 회 는 백 두 산 까 지 우 리 는 한 라 산 까 지



따 발 총 계 급 장 버 리 고 오 - 라 비 무 장 지 - 대 로
칠 조 망 들 들 돌 밀 어 라 온 누 리 비 무 장 지 - 대 로

Fine



팔 썩 림 살 바 썩 림 남 정 네 들 은 힘 겨 루 기



널 뛰 기 그 네 타 기 너 올 너 - 올 음 - 추 며 *D.S.*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공동번역)

[파송사] 이홍정 목사 (NCKK 총무)

말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방 안에 이 평화를 숨긴 채 안일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은 우리 주변의 가깝고
먼 모든 이웃들과 함께 평화를 나누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등하고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이 평화를 수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평화는 폭력의 모든 음모보다 더 강력합니다.
평화는 위험한 이상 숭배에 도전합니다.
평화는 갈등의 경계를 넘어 우리를 연대하게 합니다.
평화가 여러분에게 채워져 차고 넘쳐흐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함께 이제,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여러분 옆의 자매와 형제와 함께 그 평화를 나누십시오.

+ 모든 사람이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축도] 김보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무총장)

[징울림] 기독예술단



[알림과 사귄] 남기평 목사 (NCKK 화해통일국 간사)

[파송 및 후주] 다같이 * 사물놀이 * 기독교예술단



[알립니다]

* 매년 "세계교회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예배는 국악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장소사용에 협조로 애써주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김보현 목사, 사무총장)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함께한 임사자와, 특별히 향린교회 국악예술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NCKK는 종교시민사회와 함께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을 2023년 7월 27일까지 1억명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부탁드립니다.



2022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남측초안)

주님, 언제여야 합니까?

언제여야 길 잃은 한반도의 방향이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여야 아픔의 땅, 한(조선)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언제여야 남과 북/북과 남이 서로를 향했던 총칼을 내려놓고,

서로를 얼싸안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호소에 절망이 깃든지 오래입니다.

기약 없는 평화를 목 놓아 기다리는 것도 지쳐만 갑니다.

기어이 백년을 넘기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입니다.

주님, 언제여야 질게 드리운 분단의 그림자가 걷히는 것입니까?

긴 세월, 남과 북/북과 남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수많은 민^민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비난해왔던 수십 년간,

마음의 간극은 깊어졌고 한민족의 정체성은 희미해졌습니다.

분단을 먹이삼아 기생하는 이들은 이악스럽게 살아남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의 몸짓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긴장과 갈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민^민의 삶에 무거운 멍에가 되고 있습니다.

깨어진 신뢰 속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한반도를 휘감고 있습니다.

이념이 그어놓은 철조망은 77년째 녹슬어가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우리들의 심정은 타들어갑니다.

주님, 한(조선)반도의 민^민은 꿈이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참혹한 역사에 굶이어 생긴

깊은 상처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는 서로가 미워하며,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가 평화를 말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빚어낸 모든 간극이 해소되고,
전쟁이 세워 낸 철조망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체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막아서는 모든 이들의 욕망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는 끔찍한 전쟁이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는 폭력의 광풍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북/북과 남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며,
함께 자주적으로 복잡한 분단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한반도를 향한 민衆의 이 꿈들이 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추동할 역사의 발걸음을 상상하게 해주십시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성취해야 할 소명임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을
남과 북/북과 남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분단의 깊은 상처가 아물고,
한민족이 손을 맞잡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평화롭고 자주적인 한반도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꺼져가는 남북/북남통일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77년 분단의 세월,
가능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축적된 인고의 시간.
주님, 더는 안 됩니다.
더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는 전쟁과 폭력의 사슬에 묶여 끌려 다닐 수 없습니다.
민衆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남과 북/북과 남 그리스도인들의 절규에 응답해주십시오.
화해와 평화를 향한 버겁고 멀고 먼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정의의 왕, 평화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